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 잘나가는 타이거즈 덕아웃엔   가 있다



## ① 서재응이 들려준 KIA 덕아웃의 활기찬 분위기



덕아웃 분위기에서 KIA 성적을 엿보다. 두산 베어스와의 홈경기가 열린 9일, 안방으로 돌아온 '호랑이 군단'의 표정은 밝았다. 지난 주 대전 그리고 부산 사직으로 이어진 긴 원정길을 다녀왔지만 피곤한 기색은 없었다. 5전5승을 거두고 돌아온 만큼 덕아웃에도 흥풍이 불었다.

'응원단장'으로 통하는 KIA의 분위기 메이커 서재응은 9일 "이런 분위기 오랜만이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우승을 했던 2009년에는 KIA가 개막 3연패 후 첫 승을 신고하는 등 초반의 흐름이 썩 좋지 않았었다. 하지만 올 시즌은 캠프에서부터 분위기가 남달랐다는 설명이다.

성적과 덕아웃 분위기는 밀접하다.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덕아웃 분위기가 좋다. 또 좋은 덕아웃 분위기는 성적으로 이어진다. KIA는 올 시즌 '분위기-성적-분위기'로 이어지는 상승세다.

서재응은 "(WBC 참가때문에) 일본 캠프에는 가지 못했는데 미국에서부터 선수들의 의지가 좋았다. 중간에서 (나)지원이 많은 역할을 했다. 내년엔 군대를 가야하는데 틈만 나면 형들하고 우승을 한번 더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차)일목이도 그런 말을 자주하고 그래서 자연히 '야! 올해는 우승을 해야하는구나, 우승 적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분위기가 좋다"고 말을 했다.

“ 애들이 말해요 6회까지만 버티면 4점 뽑아준다고 나지완은 “올해 우승하고 내년 군대가겠다” 큰소리 김주찬 효과가 좋은 성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 이런 분위기 처음 ... 올해가 우승 적기구나 생각들어 ”

서재응은 "애들이 '버티세요'라고 얘기를 한다. 버티면 6회 4점 뽑아주겠다고 해서 승리 투수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넥센 전에서는 내가 못했다"면서 다시 한번 웃음을 터트렸다. 초반 경기 일정도 KIA의 신바람 행진에 플러스가 됐다. 선동열 감독은 "넥센전 1승1패를 생각했

고 대중 예상했던 스물이다. 이번 주말에는 경기도 없고 초반에 일정이 좋았다"고 말했다.

원정길에서 기본종계 쟁겨온 5승 중에서 선 감독이 가장 만족스럽게 꼽은 승은 7일 롯데와의 원정경기. 시원하게 풀어갔던 앞선 대결에 비해 이날 KIA는 3-1의 진땀승을 거뒀다.

선 감독은 "처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막아서 이기는 게 좋았다. 투수들이 안 좋으면 타자들이 역할을 해주고, 타자들이 안 좋으면 투수들이 대신 부족한 것을 채워 줄 수 있는 투·타의 조화가 좋았던 승리였다"고 언급했다.

훈훈한 덕아웃 분위기 속에 투·타의 조화가 이뤄지면서 KIA의 2013시즌이 기본종계 플러스가 됐다. 선동열 감독은 "넥센전 1승1패를 생각했

## 덕아웃 말말말

▲니가 포수냐? =박준표의 새 글러브를 살펴보면 김진우, 글러브가 딱딱하다는 얘기에 박준표가 "빠른 공을 잡으려고 한다"고 대답하자.

▲살이 찌는 게 이상하죠=살이 빠졌느냐는 질문을 받은 김원섭. 김원섭은 개막후 7경기에서의 타율이 0.125에 그쳤다.

▲(블론 세이브) 9개만 하라고 했지=선동열 감독, 앤서니에게 부담없이 마무리 역할을 하라고 했다며, 지난해 18개의 블론 세이브를 기록한 만큼 그 절반만 해도 괜찮다고.

▲마음이요=새로운 해결사 신종길, 달라진 성적의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받자.

▲바꾸고 싶으면 바꿔야지=독특한 헤어스타일의 이용규, 본인이 직접 자른 머리라면서.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해태출신 감독 '장재근의 홍익대 vs 이진열의 동국대' 응원대결

KIA 덕아웃, 대학야구 결승전에 뜨거운 관심

김선빈·고영우 동생들 활약한 동국대가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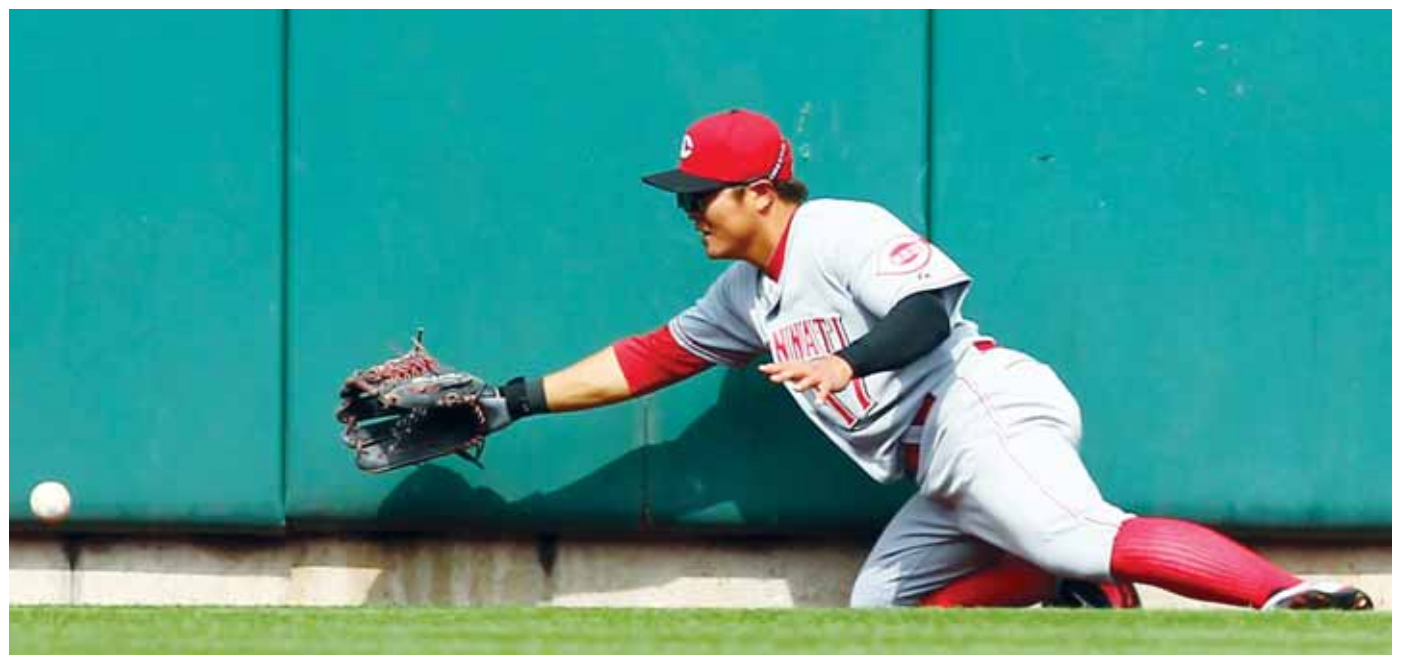


장재근 감독 이진열 감독

9일 KIA 덕아웃에서 '2013 전국 대학 야구 춘계리그'가 화제가 됐다. 이날 목동구장에서는 홍익대와 동국대의 춘계리그 결승이 열렸다. 이 경기는 1986년 해태 타이거즈 입단 동기 장재근과 이진열의 사령탑 대결이기도 했다. 장재근 감독은 지난해부터 홍익대 지휘봉을 잡고 있고, 이진열 감독은 올 시즌 KIA에서 모교로 자리를 옮겨 동국대를 지휘하고 있다. 홍익대 출신의 차일목은 동료에게 결승 진출 축하인사를 받았고, 선동열 감독도 춘계리그 결승에 대한 언급을 하며 두 사람의 맞대결에 관심을 보였다. 경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선수도 있었다.

김선빈과 고영우는 '형제 야구인'으로 동생이 동국대 선수로 뛰고 있다. 내야수 김선현(3년)과 사이드업 고영표(4년)가 각각 김선빈과 고영우의 친동생으로 모두 화승고를 졸업했다. 형들의 응원속에 두 동생은 4-0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1999년에 이어 14년만에 춘계리그 정상을 밟았다. 두 동생 모두 우승의 주역이 됐다. 2번 타자 겸 중견수로 출전한 김선현은 이날 2타점을 적시타를 기록했고, 에이스 고영표는 볼이 좋지 않아 결승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대회 3승을 책임지면서 대회 우수 투수로 선정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편 이번 결승은 지역연고 지명 부활과 함께 KIA 프런트와 팬들의 관심도 쏠린 경기였다. 고영표와 함께 광주일고를 졸업한 동국대 유격수 강민국은 각 구단들이 눈여겨 보고 있는 유망주. 영남대와의 준결승에서 만루포를 쏘아올렸던 강민국은 이번 대회에서 0.435의 타율을 기록하며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2번 놓치고 부딪치고 ... 수비 수난 추신수는 9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경기에서 1회말과 6회말에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크리스 헤이시와 부딪히기도 했으나 9회 결승 득점과 3타점을 수확, 대반전을 연출했다. /연합뉴스

## 프로야구 '지역 연고' 1차 지명제 5년만에 부활

프로야구 신인선발에서 연고지 선수를 우선 지명할 수 있는 1차 지명제도가 5년만에 부활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9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1차 지명제도를 재시행하기로 의결했다.

1차 지명제도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프로야구 구단이 연고지역 고교를 졸업한 선수를 우선 지명하는 제도다. 프로 원년부터 시행했으나 팀간 전력평준화를 이유로 2008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2009년부터는 1차 지명없이 모든 드래프트

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팀순위 역순으로 지명하는 전면 드래프트를 채택했다. 하지만 전면 드래프트를 실시하고 나서 유망주들을 해외 구단에 빼앗기고 이로 말미암아 프로팀의 지역 아마 야구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폐단을 낳았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으로 각 구단은 올해 신인 지명부터 전면 드래프트 이전에 연고 선수 1명씩을 우선해 지명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 지옥에서 천당으로... 롤러코스터 탄 추신수

잇따른 실책으로 3점 헌납  
결승득점·3타점으로 만회

9일(한국시간) 미국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에서 포구 실책 2개를 범해 팀을 궁지에 몰린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동료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나타냈다. 추신수는 9일 경기가 끝난 뒤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거의 죽다가 살았다"며 "팀 동료가 내게 새 삶을 줬다"고 인상적인 소감을 밝혔다. 그는 워닝트랙 근처에서 세인트루이스 포

수 아이다 몰리나의 뜬공을 두 차례나 글러브로 잡다가 놓쳐 3점을 헌납했다. 그 탓에 2-4로 끌려가던 신시내티는 경기 후반 4-4 동점을 이뤘고, 9회 상대팀 마운드를 두들겨 한꺼번에 9점을 뽑아내며 13-4로 역전승했다. 추신수는 9회 선수 타자로 나와 불넷을 고른 뒤 브랜든 필립스의 적시 2루타 때 홈을 밟아 결승득점을 올렸고 타자 일순후 계속된 만루 찬스에서 좌전상에 떨어지는 3타점 2루타를 날려 대승에 힘을 보탤었다. 공격에서 실책을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동료에게 추신수가 감사의 뜻을 표한 셈이다. 추신수는 "햇빛이 공이 들어간 것은 경기의 일부"라며 "그냥 타구를 놓쳤고, 이

는 변명의 여지없는 내 실수"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중견수로 적응하면서 경기장 환경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며 앞으로 실수를 줄여가겠다고 덧붙였다. 디스티 베이커 신시내티 감독과 이날 선발 투수인 맷 라토스, 간판 타자 필립스는 추신수의 실수를 감싸며 끈끈한 동료애를 발휘했다. 먼저 라토스는 "내가 높은 공 2개를 실투하지 않았다면 추신수가 그런 상황을 겪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그는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신수에게 "실수를 빨리 잊고 출루해 집중해 득점을 올려달라"고 주문했다고 실제 추신수는 그렇게 했다"며 그의 활약상을 높게 평가했다. /연합뉴스